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1998. 9. 15 창간

vol.205

# 춘천 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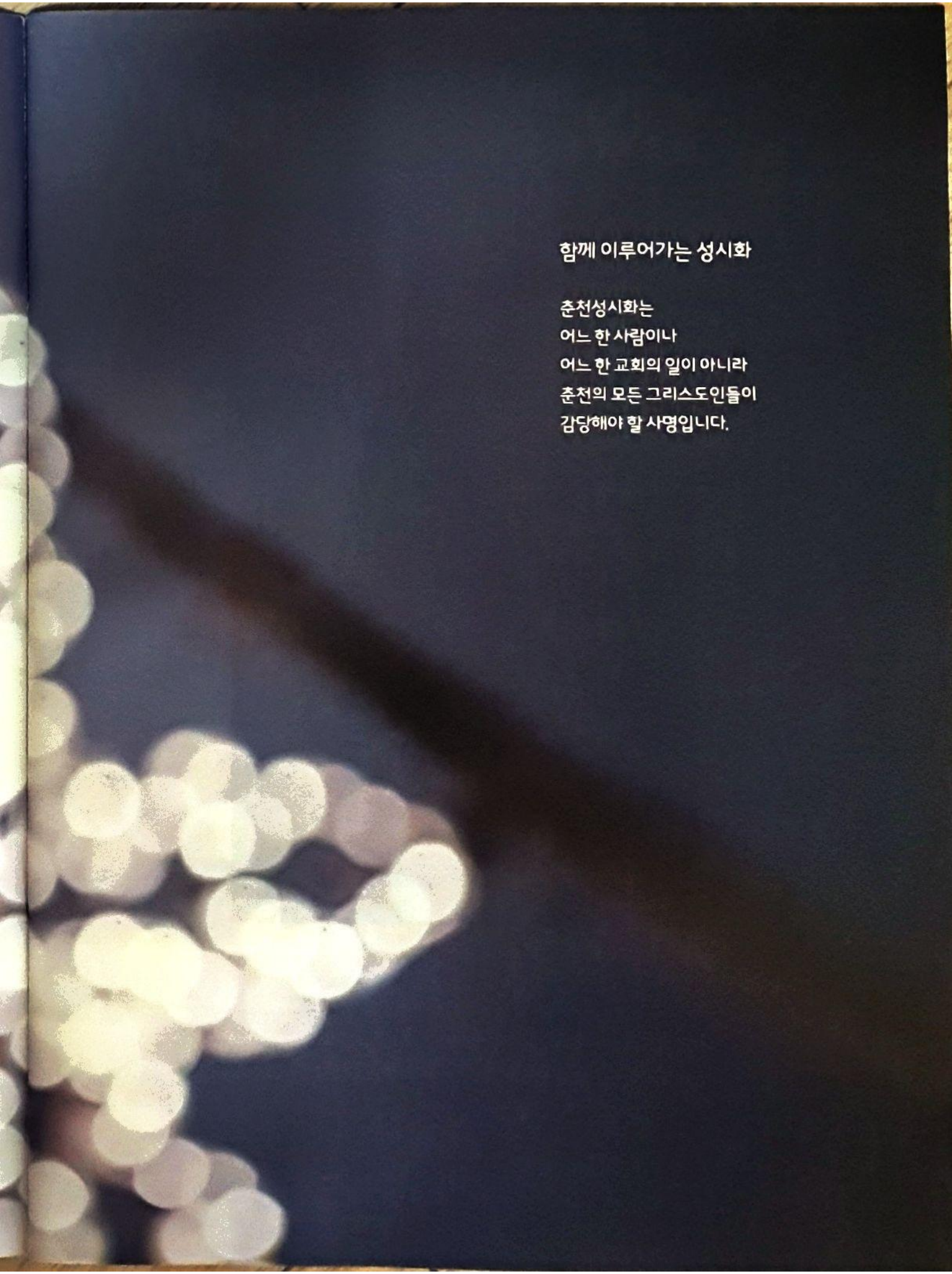
2015 12




성탄 특집 우리와 더불어 계신 하나님
평화예수, 그 분의 오심을
성시화 2016년 연합화장 인사말
종교개혁 2 청교도적 예배의 개혁과 갱신
다음세대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춘천시





##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성탄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구세주의 영광이 세상의 요란함과 어두움 속에서 더 빛나기를 기도한다.

먼저 성육신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마지막 때를 감당해 낼 하늘의 능력으로 주어지기를 기도한다.

# *Editor's Letter*

지금부터 30여 년 전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교회 마당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성탄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했었다. 굳이 언제부터라고 못 박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없는 교회는 교인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대로 계속된다면 10년 후와 20년 후에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교회학자 하워드 스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가마솥 안에 개구리' 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나친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미래학자가 예견하는 것처럼 2030년대에는 현재 교회가 '반 토막 난다' 는 말이 매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사롭지 않게 여겨진다. 성탄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들마다 다시 들리게 할 순 없을까?

우리는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귀에 딱지가 안 도록 들어왔다. 교회에는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위기와 그 충격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현재는 잘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에도 과연 문제가 없는지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하여 예배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교회 안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선교와 봉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더 꼼꼼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현재 내적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외적으로는 이슬람의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슬람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다음 반세기 동안, 이슬람으로 서구 사회를 모두 정복할 것이다' 라고 호언하고 있다. 현재 서구 유럽은 무서운 속도로 이슬람화 되고 있다. 교회가 내적인 비만으로 중병을 앓는 동안 복음이 정체된 것과 상반되게 코란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진리가 진리 되게 할 사명, 복음이 복음 되게 할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다.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 되신 주님을 전하기에 최고의 기회이다. 성탄이 세속 문화 속에서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이다.

**편집장 최영조**

#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성낙환,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Contents**

2015.12
vol.205


003 **에디터 레터**

006 **캘린더**
12월 소식을 한눈에

008 **성탄특집 1**
우리와 더불어 계신 하나님

010 **성탄특집 2**
평화예수, 그 분의 오심을 꿈꾼다

012 **성시화**
2016년 연합회장 인사말

014 **통일**
쥬빌리 47차 춘천 모임

016 **종교개혁 시리즈 2**
청교도적 예배의 개혁과 갱신

020 **칼럼**
예향

021 **예향 / 만평**

022 **다음세대**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025 **가정**
우정과 동성애

028 **시사**
이슬람과 할랄식품 개발

030 **기획**
강원 칼넷 포럼

032 **예수안에서 본 예술**
Salvation

034 **기관탐방**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037 **시**
선물

038 **건강이야기**
체온과 건강

040 **예수의 미소**
매운맛 열전

042 **영화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

044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045 **11월을 돌아보며**

050 **알려드립니다**

052 **음악이야기**
IL DIVO "Amazing Grace"

056 **후원자 명단**

# 12
## 2015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 ◆ 성시화 기도제목

· 역사성(History) 인류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도시거룩운동이 한국에서는 김준곤 목사를 통해 전 교회가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는 3전 운동으로 구체화되어, 1972년 제네바와 같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 운동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후대에 전수되게 하소서.(마9:35~38)

· 주체성(Who: The Whole Church) 이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먼저 나와 내집 우리부터 회개하고 감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며 사회책임을 다하는 성시화운동이 되게 하소서.(빌2:13, 대하7:14)

· 대상성(What: The Whole City)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을 묶고 있는 불신앙.불순종.우상숭배.이기주의.배금주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시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는 법제와 정치, 사람들이 의존해 살고 있는 자연환경도 복음으로 변화.개혁.회복되게 하소서.(행3:21, 골1:20, 계21:5)

· 내용성(How: The Whole Gospel) 교인마다 전도하고 시민마다 복음을 듣게 하며 교회마다 배가 부흥되어 우리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성스러운 도시.복스러운 도시.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소서.(마4:23)

| SUNDAY | MONDAY | TUESDAY |
|---|---|---|
| | | **1**<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br>[JDM] 한국 간사회<br>JDM 훈련센터 |
| **6** | **7**<br>[IVF] 제자학교 수료식<br>IVF 회관 | **8**<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 **13**<br>[기드온순방예배]<br>오전 11시, 광염교회, 늘사랑교회, 가평장로교회 | **14**<br>**[춘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br>4주년 기념 12시간기도회<br>오전 10시~ 오후 10시<br>주향교회<br>[IVF] ~ 18일<br>제4차 춘천지방회사역협의회<br>[DFC] 증강모임 | **15**<br>춘천성시지도자모임<br>오전 7시<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 **20** | **21** | **22**<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br>[DFC] 춘천지역 맏가지 모임 |
| **27** | **28**<br>[JDM] ~31일 춘천지구 겨울집회<br>횡성성은수양관<br>[ESF] ~31일<br>겨울 수양회, 양주 예닮원<br>[예스컴] ~30일<br>스템수련회, 드림성결교회<br>[IVF] ~ 31일<br>기초신앙훈련, 원주IVF회관<br>[CCC] ~31일 겨울 금식수련회<br>가나안 농군학교<br>[DFC] ~ 31일, 겨울 수련회<br>**[통일광장기도회]**<br>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 **29**<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2**<br>[IVF] 캠퍼스사역위원회<br>춘천장로교연합회 정기총회<br>오전 11시, 성광교회<br>[성탄전도포럼 4-14]<br>오전 11시, 주향교회<br>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 **3**<br>[예스컴]<br>학교 밖 청소년 모임<br>예스컴센터 | **4**<br>[구세군 춘천자선냄비 시종식]<br>오후 2시, 시청 앞 광장<br>[CCC] 아가페 졸업생 파송예배<br>한림대 | **5**<br>[CCC] 졸업생 파송채플<br>CCC회관<br>[CCC] 홈빌더 인도자 세미나<br>CCC본부 A동 |
| **9**<br>[GBT] ~11일<br>자선학 평가회 | **10**<br>[JDM]<br>춘천지구 증강채플 | **11** | **12**<br>[홀리클럽총회]<br>오후 4시, 석사교회 |
| **16** | **17** | **18**<br>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br>오전 11시, 온누리교회<br>[근현대사 세미나]<br>저녁 8시, 순복음춘천교회 | **19**<br>[근현대사 세미나]<br>오전 10시, 베드로선교센터<br>[예스컴] 예스컴프레이즈<br>저녁 6시, 중앙성결교회 |
| **23** | **24** | **25**<br>성탄절 | **26** |
| **30** | **31**<br>송년예배 | | |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 우리와 더불어 계신 하나님

세계인들이 쓰는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2015년에 이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 17:31 · : 롬 1: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마 1:21)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신 우리와 더불어 계신 하나님(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 1:23)이시다.

그 오심을 기념하기 위한 12월 25일 성탄절은 비단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는 축제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탄절을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Natal is Solis Invicti)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탄절과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다.(대영백과사전)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교적 절기에 교회는

태양이 신(神)이 아니며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태양이심을 증언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마스(Christ-mas)의 기원이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이교(異敎) 나라였던 로마에서 기독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절기이다. 이전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탄절인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다.(성탄절기에 대한 단상, 이승구 교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요 1:4, 9)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All is calm, all is bright."을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적어도 조용하고 밝은 밤이라고 번역되었어야 한다. 이 노래는 요한복음 1:4, 9에 나오는 빛이신 예수님을 기리는 노래인데,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버린 것처럼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 또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노래를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우상 숭배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막 10:19)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전 10:14; 요일 5:21 유 1:4))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날을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만, 이날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일 3:5-6) 용서하는 생활로 선을 행하자는 것이다.(엡 2:10 딛 2:11-15)

세상은 소망이 없는 멸망의 상태에 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이 세상의 임금은 속이고 있고(요 14:27), 속고 있지만 말이다. 죽음은 우리의 죄로 만든 멸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왜 예수님은 오셨는가? 즉, 우리 주님의 성육신(成肉身)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들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눅 19:10).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마 4:12-16)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함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

이영규 기자 / abba-father@hanmail.net



# 평화예수, 그분의 오심을 꿈꾼다

오늘 아침, 러시아가 극단주의 이슬람인 IS 기지와 정유시설을 초토화하였다는 기사가 올랐다. 곧이어 러시아와 프랑스, 미국도 지상군을 시리아에 투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돈다. 최근 프랑스 파리의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간 느낌이다. IS의 만행으로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국인, 세계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 IS는 그들의 구세주 알라와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 선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믿는 신을 묵상하노라면 이는 신이 아니라 악마이다. 마치 그들은 악마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듯하다. 당분간 시리아는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물론 언 듯 보기에는 전장이 시리아로 옮겨 간 듯하지만 전통적인 싸움터는 시리아가 아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지난 60년이 긴장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왜곡된 유태교의 야훼라는 신과 이슬람교의 알라라는 신의 대결장이었다. 예루살렘의 '살렘'은 평화, 평안을 뜻하는 샬롬과 어원이 같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지난 60년은 샬롬이 없는 예루살렘이었다. 야훼도 알라도 샬롬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는 어떠한가. 2천 년 전 이 땅에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으시며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샬롬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다. 샬롬도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는 희망의 부활이고, 샬롬의 부활이다. 인류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안의 샬롬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섬김, 겸손을 앞세우고 샬롬을 외치고, 샬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 죄와 평화

역사를 보자. 초기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다. 추방이후 인류의 역사를 '비극적'이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류가운데 샬롬의 부재이다.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샬롬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류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순간도 전쟁과 가난, 질병과 재난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 이토록 인간역사는 한 마디로 샬롬 부재의 역사이다. 이러한 샬롬 없는 인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부른다. 그날이 지금의 12월 25일이든 그 어느 날이든 상관없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샬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샬롬의 왕"이라고 선포한다.

예수님이 외치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나라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샬롬(평안)으로 가득 찬 나라이다. 에베소서 2장 17절 이하를 보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7절**

Christ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Gentiles, who were far from God, and peace to us Jews, who were near God.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들어간다. 오늘날 우리 예수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죄의 회개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나라만 강조되었지 회개하고 들어가는 하나님나라는 크게 강조되지 못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를 보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Then Jesus started preaching, "Turn back to God! The kingdom of heaven will soon be here."

하나님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하나님나라는 먼저 회개함으로 들어간다. 회개가 무엇인가? 돌이킴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나라 안의 샬롬(평안)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샬롬이 멀게 느껴지는가?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인가? 우리들의 문제이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일서 2장 11절**

If we hate others, we are living and walking in the dark.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because we can't see in the dark.

### 그의 길을 따라가자

우리 도시 춘천은 지난 1972년 여름, 전국 최초의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이래 '거룩한 도시, 모델 도시의 꿈'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 기도하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얻듯,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혜택을 받도록 교회가 노력하자. 또한 분단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저 북녘 땅에도 샬롬을 전하자. 이를 위해 춘천의 400여 개의 교회들이 작은 평화의 충전소가 되자. 주께 받은 평화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골고루 나누자.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 2016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인사말



2016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차덕수 목사 (강원침례교회)

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자선냄비의 종소리와 함께 즐거운 캐롤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표정엔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성탄의 계절에 겸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 올립니다. 크리스마스엔 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어릴 적에도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인듯합니다.

성시화 운동이 시작된 춘천에서 기독교연합회장 및 춘천성시운동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요즘 그 무게감을 실감하며 저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춘천성시화와 기독교 연합을 위하여 춘천시내 기독교 초교파 모든 목사님 및 장로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로 열과 성의를 갖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재임 기간 중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는 물론 초교파적 춘천기독교연합회의 연합을 위하여 힘쓰고 또한 춘천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천성시화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춘천시와 협의하여 "시목협의회"를 조직하고 성시화 운동에 한걸음 더 접근하는 디딤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등 이단과 "동성애차별금지법" "학교인권조례안"등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큰 해악을 초래하는 독소적 법안이 법제화되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깨어 있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적 진리를 사수하는 춘천기독교연합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춘천지역의 450여 교회가 함께 부흥하며 성장하여 향기나는 사람들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일 년 중 이맘때가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새해 계획에 춘천기독교 연합과 성시화를 위한 계획이 더 큰 은혜로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의 성시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후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춘천의 거룩한 도시 성시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2016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인사말



2016 춘천목회자연합회장
박찬욱 목사 (춘천새순교회)

성시화의 도시 춘천에서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째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인도하심만을 기대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느 덧 적응의 기간이 지나갈 때가 되었나 싶었는데, 뜻밖에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올해부터 목회자연합회로 변경됨)를 섬기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면에서 낯설기에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중한 직임이 맡겨진 데는 그럴만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며 정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 적부터 춘천지역에서 목회를 해온 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낯선 곳에서의 목회를 힘쓰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나누며 목회 현장의 적응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선적으로 할 일을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전입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두고자 합니다.

또한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춘천목회자연합회 목회자들의 상호 교제와 신앙적인 유익을 위하여 국내 선교지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남 증도의 문준경 전도자의 순교지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생을 춘천 성시화를 위하여 맡은 목양지에서 목회에 힘쓰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찾아 섬기는 일입니다. 목회의 대선배님들의 목회의 한 수를 배우는 기회가 되며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춘천목회자연합회가 외롭고 힘든 길이나 오직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성으로 섬기시는 초교파 목회자들의 연합과 격려와 위로를 위한 작은 네크워크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7차 춘천모임 강의를 정리한 글입니다.

# 강청기도

## 누가복음 18장 1~8절



이종한 목사(제주아름다운교회, 제주쥬빌리 대표)

눅17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는지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18장 본문 끝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하신다. 이 두 말씀 사이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낙심치 말며 계속해서 강하게 청하는 강청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유를 보면, 한 과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요구하여 번거롭게 하기에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 주리라고 했고, 불의한 재판장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면, 무엇을 강청하고 어떻게 강청해야 하는가이다. 본문에서 과부의 말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 권리를 빼앗겼으니 빼앗긴 권리를 찾아 주소서"하고 재판장에게 강청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긴 권리 회복에 대한 갈망이다.

통일을 위한 기도는 이와 같다. 우리 민족은 한 민족으로 살아갈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가운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분단되었고, 동방의 예루살렘의 명성을 가졌던 거룩한 부흥의 역사들, 또 수많은 예배당들을 다 빼앗겼다. 더구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빼앗겨가며 숨죽이고 살고 있다. 지하교회 성도가 대동강변 조약돌에 쓴 편지를 본 적이 있다. "내 평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소리 내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도 인권의 보호를 받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며, 마음껏 구원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 빼앗겼습니다. 주여!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강청해야 한다.

또 빼앗긴 권리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다음

세대이다. 우리 다음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며, 통일 한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세대를 위해 강청기도를 해야 한다. 현재 다음세대는 미전도 종족같이 되었다. 전도율이 5~7%이다. 100명중 5~7명만 예수를 믿고 있다. 기막힌 일이다.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곳 훈련을 시작할 때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게 하는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했다. 다니엘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뜻을 정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했다. 둘째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유익이 보장되지만 세상의 가르침과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셋째는, 다니엘이 60여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총리가 되어 그곳에서 막강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 영향력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려 여러 가지를 캐보았더니 없어서 신앙적인 것을 건드리려고 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과 삶에 있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다음세대들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세 가지 뜻을 정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경적 가치로 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을 받았기에 어린 나이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뜻을 정하였을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된 여호야김이 왕이었던 극도로 타락한 시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런 시기에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일까? 다니엘은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어렸지만 요시야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기에 그는 바벨론에 가서도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물질적 풍요와 그래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물려준다. 하지만 동시에 분단된 조국, 영향력 잃은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할 운명에 놓인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 세대가 타락하여도 다음세대들이 거룩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다음세대들이 빼앗기는 권리들을 되찾고 잃지 않도록 강청기도를 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 주3회씩 청소년들과 2시간씩 기도한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도모임을 만들고, 1년에 두 번씩 전도 집회를 만들어내며, 구원의 원리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시킨다. 주일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청소년들이 100-150명씩 모인다. 1시간의 설교를 듣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 아이들이 살아나기에 기도가 멈춰질 수 없고 사역을 멈출 수 없다.

주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하셨다. 기도하다가 멈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 환경 때문에, 응답이 안 되어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 멈추고 있지 않은가. 멈추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빼앗긴 권리를 찾게 해달라는 강청기도를 멈추지 말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민족의 통일선교와 다음세대가 거룩한 부흥을 목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말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강청기도 이어야 한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 청교도적 예배의 개혁과 갱신

영국 엘리자베스 I세 여왕 시대의 종교적 관행과 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통치 방식을 개혁하려고 했던 개신교도들이 비난 어린 어조로 1560년대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청교도'(Precisians or Puritans)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영국과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에서 나타나고 전개된 청교도 운동은 사실 여러 면에서 매우 범위가 큰 운동이다.

거의 모든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노력의 하나는 자신들이 이해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예배를 개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분야보다도 무엇보다 먼저 특별히 예배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1. 청교도들이 개혁하려고 한 예배의 요소들

청교도들은 이전 칼빈주의자들의 강조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세례 예배 때에 신부가 아기의 머리에 십자가를 긋는 것, 대부 대모를 세워 세례식을 진행하는 것, 산파들이 세례하는 것 등을 비판하면서 개혁하려고 했다. 또한 주교가 견신례를 하고서야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 성찬 때에 제단(altar)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반복하여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서 받는 것, 성체에 대해서와 제단에 대해서 깊어 절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리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중세 때의 독특한 의복을 착용하고 인도하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놓는 것, 예배 때 촛불을 밝히는 것과 향을 피우는 것을 의식적 행위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 심지어 성인들의 상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는 것 등의 중세적 사세주의에서 나온 미신적인 것들로 여기면서 거부하였다.

이와 함께 숙련된 성가대, 벨을 울리는 것, 오르간 연주 등을 예배 중에 금지시켰다. 그리하여 루터와 칼빈의 가르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청교도들은 '제단'(altar)이라는 말을 폐하고 성찬상(table)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제사 드린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으며, 제사장(사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혼인식도 성례가 아님을 강조하고 심지어 반지 끼우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했을 정도이며 혼인식보다는 정혼을 좀 더 강조하고, 장례 때에도 아무런 다른 의식을 행하지 않고 바로 장사하기를 선호했다. 천주교회에서 개발된 목회적 의식들을 모두 미신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 가운데서 폐하라고 한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는 것'에 대해 충실하기 위해 그동안 발전되어 거룩한 날들로 지켜 오던 40여 일의 성자들의 날들과 100여 일의 금식일들을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폐하고, 심지어 성탄절도 지킬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리처드 그린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우리들의 부활절, 우리의 승천절, 우리의 성령 강림절은 매 주일이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예배당 창문의 스테인드글라스를 금했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윌리스턴 워커가 잘 요약한 바와 같이, "로마적인 미신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에서 제거시키고, 모든 교구에 진지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를 영입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이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들이었기보다는 보다 긍정적 작업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 보여야 한다. 그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도 결국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예배 개혁에 대한 청교도들의 적극적(긍정적) 노력

청교도들은 미신적인 의식의 수행 대신에 하나님 말씀의 공적이고도 연속적인 설교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상적인 수단과 방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청교도들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원문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해석에 근거해서 교리와 실천적인 적용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으로부터 찾아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는 당대의 상황 가운데서는 매우 중요한 공헌이었으니,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I세는 온 나라에 설교자가 3-4명이면 족하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에게는 설교자와 설교 사역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것이나 글로 하는 것이나 설교는 청교도들에게 생명이었다."는 뉴(New)의 말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월저는 설교자가 '16세기 청교도의 영웅'이었다고도 표현했다. 이것은 청교도 설교자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일반 성도들이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먼 곳까지 가서 주일이나 주간 중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썼다는 말이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설교할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청교도들은 심지어 그들의 교회 건물까지도 설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는 청교도 예배당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깨끗하고 조명이 잘된 예배당은 청교도 예배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였으니, 그것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규정적 원리'를 말하고 확정한 것이 예배에 대한 청교도들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예배의 요소들을 찾아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성경에 없는 데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배의 요소들을 전부 거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교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예배에서 실천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 안에 규정되지 않은 그 어떤 다른 방법이 그 어떤 방식으로 제안되어도 그것은 옳지 않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한 것이다: "말씀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불법적인 것이다." 이런 규정적 원리를 성경으로부터 찾아 제시하려고 한 대표적인 예의 하나를 위는 토마스 카트라이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예배의 구체적인 것

들이 그에 따라 규정되어야만 하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는 그 누구도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전 10:32).
② 둘째는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해져야 한다(고전 14:40).
③ 셋째는 모든 것이 덕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고전 14:26).
④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만 한다.

청교도들은 그런 성경적 원리에 충실하게 자신들이 제안하는 예배 모범(Directory for Public Worship)을 제시하기도 했다. 1644년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어서 1645년 1월에 영국 의회가 기도서를 폐지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예배 모범은 이전의 영국 교회의 기도서(Prayer Book)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성경의 규정적 원리에 충실한 것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한 예배 모범의 제시였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배의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모범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주님을 경배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예배는 ① 성경에 대한 깊은 존중과 ② 경배자들의 상태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으며, ③ 그들이 예배를 즐겼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홀톤 데이비스 같은 이는 청교도 예배가 "순수성(purity), 단순성(simplicity), 그리고 경건함(spirituality)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오순절적 열심과 사도적 교회의 기대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청교도의 예배나 그들이 존중한 성경적 원리에 따른 예배가 생기 있고, 사람을 살게 하며, 주께 더 헌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마치는 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대한 청교도들의 헌신과 사랑과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믿는 바를 고치고 이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을 정확히 표현 해보려고 한 것, 또한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와 교회 조직과 삶을 개혁하려고 한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우리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개혁파적인 청교도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글 / 이승구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예향' 예수님의 향기

-기독 문인들을 '아우르는' 모임

춘천의 명산 봉의 산기슭에 사는 세월이 40년이다. 봄에는 개나리 꽃 향을 여름에는 아카시아 꿀 향기를 마음껏 맡다가 낙엽을 보면 이어서 산은 흰옷을 입는다. 산중턱에서 내려다보니 빌딩 사이사이에 십자가가 참 많다. 정녕 저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상이 되겠지!

성시화운동의 발상지인 춘천의 밤 모습은 더 없이 아름답다. 하지만, 저 불빛 속에서 광란의 춤을 추며 아귀다툼 하는 무리, 사는 것의 본질을 잃어 공허한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많으니 질서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해야겠다.

춘천시민 28만 명의 20%가 기독교인이고 5백여 교회가 '예수사랑' 소리 높여 외치고 있으나 성시화의 물결은 널리 퍼지지 않고 간간이 멈춘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 하리이다〉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인의 음성을 들으며 성시화 물결이 더 넓게 퍼졌으면 한다.

시대 발전에 따라 도시마다 문화예술이 융성하고 문인들의 글이 빛난다. 춘천도 그렇다. 고려 고종(1227~)때 문과에 급제한 문장가 박항(朴恒)은 춘천박씨 시조로서 춘천을 한시로 예찬 하였고, 조선조(1439~)의 성현(成俔)은 춘천의 봉의산을 주제로 한시를 썼다. 개화기에는 이인직, 이해조가 소양정과 춘천을 소설 배경으로 표현했고, 현대 초기에는 향토작가 김유정이 농민소설을 써서 현재는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는 문향의 도시가 되었다.

많은 문인들이 각자의 장르에서 활동하며 그중에는 기독인 작가들이 많다. 그러나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는 매체가 없다. 그래서 기독문인들을 아우르고, 향토문학 발전에 동참하며 기독교 본질의 목적을 이루는 '강원기독문인회'를 창립하고 〈예향의샘〉을 발간하였다. 이 모임이 예수의 향기, 예술의 향기가 솟는 샘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예수의 향기를 맡으면 영혼이 맑아진다.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원하거든, 글을 써라. *큰 은사를 사모하면 좋은 길을 보여 주신다.(고전 12장31절)

이러한 신념으로 우리는 글을 쓰며 성시화 운동에 작은 노력을 하려는 의지를 마음에 담는다. 샬롬!

글 / 김기태 장로(강원기독 문인회 창립회장)

## 앞서지 말자

미국 뉴펜 대학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보통 아무도 없을 때는 약 26초가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약 31초가 걸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서두를 때는 마음이 더 불안해 결국 주차하는 시간이 약 43초나 걸렸다고 한다.

그렇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모함을 가지되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 기다리면 이삭 되고, 조급하면 이스마엘 된다는 말이 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교과서국정화반대?
기독교방송 편파방송?
노동개혁?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성경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환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점점 희귀하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의 진단과 교회 안팎에서 청소년들의 신앙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그 대책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회에서의 활동 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교공부의 틀에 신앙생활을 끼워 넣어서 우선순위가 학교공부가 될 수밖에 없거나 신앙생활에 큰 기대와 만족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환경 때문 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시작한 것이 토요 모임과 다양한 모임 및 활동입니다.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며 모임과 행사의 모든 기획 및 준비과정은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움직이는 것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요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된 십 여 명의 리더가 세워져 토요새벽예배 찬양인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전도 및 다양한 중고등부 행사를 준비합니다.




포하고 주일 오후 예배 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영성훈련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한 복음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부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춘천 근교 산행을 비롯,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기도 하고, 분기별 30km 행군으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체력 때문에 좌절이 되지 않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올 기회가 적어 그들을 교회로 부르기 위해 친구 초청잔치를 계획해서 매년 2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부터 진행, 마무리 정리까지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천국을 모른 채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듣기 힘든 그들에게 우리는 직접 거리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요가 아닌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춘천 시내에 울려 퍼지길 소망했습니다.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주님을 세상 속에서 높일 수 있어 학생들에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보다 더 익숙한 위십으로 주님을 전하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시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직접 주님께서 부르시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주님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힘들 땐 교회로, 괴로울 땐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 피켓 및 현수막으로, 목소리로 예수님 품에 모두 돌아오길 소망하며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거부, 어른들의 큰 호통, 민원신고로 인한 경찰관의 출동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며 겪는 고난은 우리에겐 큰 기쁨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2014년에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47명의 학생들과 필리핀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5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1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삶에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며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순복음춘천교회 학생들은 이를 몸소 보여주는 학생들입니다. 아버지의 피맺힌 소원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글 / 신건호전도사(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 '우정' 을 통해 친밀감을 배우며 성장하는 청소년

## – 그러나 순수한 우정의 시기가 오염되다 –

최근 '브로만스' 라 하여 동성 친구 간에 강한 정서적 친밀감을 나누는 깊은 우정, 그러나 성적인 관계는 없는 친구관계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화하여 다루면서 동성애의 일종인 것으로, 다시 말해 성적인 관계는 없는 '플라토닉' 한 동성애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브로만스(bromance)라는 말은 brother 와 romance 의 합성어로서 '우정' 의 범주에 속하는 친구 관계를 잠재적인 동성애로 오해하게 만들어 친구 사귀기를 꺼려하게 하거나 반대로 친구 사이에 성적행동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우정의 정의

우정이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애정을 가진 관계를 말하며 여기에는 애정, 공감, 감정이입, 솔직함, 이타심, 상호이해와 동정심, 신뢰가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서로에게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실수를 해도 상대방의 판단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다.

### 우정의 발달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 특히 어머니는 그 아기가 처음 만나는 세상이다. 아기는 아직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착하게 행동한다든지 무엇을 하지도 않았지만, 아기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기쁨이고 보상이며 칭찬이 된다. 아기는 이러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장차 사회, 넓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신뢰' 의 기반을

인격 안에 갖게 된다. 부모와의 기본 신뢰(basic trust)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사람은 자라면서 친구 관계도 원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에도 잘 적응한다. 아동기 초기에는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논다든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다가 점점 친구(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룹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된다. 그 중에 특별한 친밀감을 갖는 서너명 혹은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는데 '우정'의 관계로서, 이는 어느 정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며 또 이타적, 희생적, 헌신적인 사랑이라서 동서고금에 '우정'을 소재로 한 스토리, 미담, 격언 등은 인류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그 전형을 보고 있다. 인간은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이러한 '우정'의 시기를 통해 친밀감(intimacy), 나눔, 공감의 능력, 상대방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감정과 의지를 경험하면서 다음 단계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사춘기 시절의 우정

사춘기가 되면 또래친구들과의 관계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또래들의 문화나 행동양식은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것이 부정적인 문화, 행동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고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편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부끄리워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롤모델이 부족했다든지 정서적 갈망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성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애만 태울지도 모른다. 이처럼 이성에게 관심은 있으나 표현하거나 다가가지 못 하고 혹은 그런 감정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억압해 버리는 청소년이, '동성애는 타고난 것' 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혹은 '없는 것 같으니까' 또는 '이성을 대하는 것은 불편하니까....혹시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할 것이다. 스스로 '타고난' 동성애자일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동성 친구와 우정을 쌓는 일을 경계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한편 범람하는 음란동영상(동성애, 소아성애 등...)에 반복 노출되어 그러한 장면과 상황에 익숙해지면 기회가 왔을 때 별 저항감 없이 동성 간의 성행동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성행동이 시작되면 인격적, 정서적, 지적 교제는 도외시되고 점점 새롭고 강한 성적 자극의 포로가 되어 버릴 뿐 아니라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오해가 고착되어, 사춘기 초기 혹은 학동기에 이성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리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우선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며, 유전인자가 똑같고 자라는 환경도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가 둘 다 동성애자가 되는 비율은 10% 밖에 안 된다.(길원평 외 5인,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라온누리, 2014)

상담 케이스

필자가 최근 상담한 25세 청년의 케이스를 보면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고2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초등 3학년 때부터 음란동영상을 수없이 보았고, 그 내용은 주로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 변태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중학생 때 여학생들에게는 부끄러워서 접근할 생각도 못했고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데,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자취생활을 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동성애자들의 세계에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동성과의 성행동을 시작하였다. 2년간은 하루 파트너(소위 '번개'), 1년은 고정된 동성 '애인'을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기도원 집회에 갔다가 동성애가 AIDS, 곤지름, 변실금과 연관이 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 날 '애인'과 결별을 통보하고 지금은 매일 2-3시간씩 성경통독을 하면서 동성애에서 또 포르노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제안

탈동성애 사역을 하고 계신 이요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상담한 1000여명의 동성애자들 중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30%가 넘는다 하였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음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구별하며 동성애에서 구출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1) 초등학교 때부터 혼전순결을 가르치고 가능하면 '혼전순결서약식' 같은 세리모니를 교회에서 한다.**

**2) 음란동영상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죄악으로 이끄는지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다.**

**3) 동성애와 AIDS, 곤지름, 변실금 등의 연관성, 그리고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르친다.**

**4)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그러나 혼전, 혼외 등 결혼 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글 / 기정희 원장(베드로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일본선교사)

# 이슬람과 할랄 식품 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국제적으로 이슬람권의 테러문제로 전 세계가 전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도 절대 테러는 용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으나 우리나라도 극렬 테러 분자인 IS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에 당착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친 이슬람 전략과 할랄 식품의 개발 개방등을 국가 시책으로 삼으려는 것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동개발이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며, 제2의 중동 붐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저가 임금의 인력 인프라 수입과 오일 머니로 축척된 막대한 자금력의 유입, 그리고 16억이 넘는 무슬림들의 먹거리 식품인 할랄에 주목하여 여러 지자체들로 클러스트 단지들의 개발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식품의 인증과 개발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국가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작금의 파리 테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그들의 변하지 않는 폭력성과 이중성은 이로 발생케 될 한국적 공동체의 파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증폭되어 있는 이때 더 많은 불덩이를 던질 것이 확실한 이슬람 문화의 유입은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경제지표나 우리 한국이 직면한 수출 정체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2018년 동계올림픽을 통해 중동에서 들어올 많은 관광객들의 수용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슬림들이 먹어야 할 식품 특히 할랄 음식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도지사도 피력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오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미풍양속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할랄 음식을 어떻게 공급해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할랄 음식을 만들고 공급하며 심지어 수출까지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기에 반드시 짚어가며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1. 할랄 식품은 극렬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분자는 아니지만 테러범 거의 모두는 무슬림이다"

특히 할랄 음식을 검사, 인증해주는 사람은 무슬림의 지도자인 이맘이어야 한다. 이들은 극렬한 원리주의자들임을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이맘은 정부가 신분을 인정하고 보장을 해줘야 하기에 합법적 원리주의자의 지역적 정착을 도와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몇백명 이상이 이주하게 됨으로 그들만의 공동체가 구성되어 문화와 사원건립 또한 샤리아법의 통치와 자신들만의 자치지구 결성, 일부다처의 결혼법등으로 한국의 공권력조차 미치지 못할 우리 사회 안에 이질적 극력 공동체를 인정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2. 할랄 식품은 우리 사회의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세금폭탄이 된다. 이슬람 사업 배경에는 반드시 그들만의 자금인 수쿠크 금융이 숨어 있다. 이 금융은 구조적으로 모든 세금감면을 전제 조건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기대할 수 없다. 설상가상 우리나라의 다문화 우대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임금의 70%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모든 자금을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한다. 더욱 이 음식들은 현재 국제적 시세를 감안할 때 수출의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수출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국내적인 소비로 또 하나의 식품 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막상 무슬림들은 이 식품과는 상관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막대한 혈세로 이슬람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된다.

3. 할랄 식품은 청정 웰빙 음식이 아니다. 이 식품의 검증은 엄격한 청정 유해 여부가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대로 목을 잘라 피를 어떻게 빼느냐 또는 메카를 향해 머리를 돌려놨느냐 등등 그들만의 독특한 요구에 부응해야 인증이 될 음식이다. 처리 과정에서 동물학대적 요소가 너무나 많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죽여야 하므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독이 고기에 퍼질 수 있음을 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율법적인 것이 6세기적인 살육법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식품일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4. 할랄 식품은 IS를 비롯한 다양한 테러에 자금줄이 될 수 있다.

이 식품 수익금의 상당부분은 이슬람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금액으로 헌납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의든 타의든 우리가 협오하는 테러집단의 자금을 우리도 모르게 자진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욱 이 부분을 다루는 데에 있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는 자칫 종교적 갈등문제나 인종적 차별문제로 비춰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 종교 간의 시기심이나 과거 십자군과 같이 반목과 몰이해로 치부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독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써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단연코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 글로 제언해 본다. 또한 이런 주장이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는 이기적 주장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과거 중동의 건설 붐과는 달리 엄청난 국가적 혈세 낭비의 늪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약관화하기에 이를 신중하고 합리성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강원지역 칼넷 (CAL-NET) 포럼

CAL-NET(Called to Awaken the Laity-Network)은 제자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워 함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제자훈련 지도자들의 전국 네트워크이다. 강원 CAL-NET 모임은 해마다 지역 모임을 통해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공유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제자훈련 포럼을 연다. 강원 CAL-NET은 고문으로 신재원목사(새춘천교회), 대표는 오생락목사(하늘평안교회)와 김영민목사(강릉 강남교회), 총무는 이병철목사(주향교회)가 섬기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강원 지역 CAL-NET 포럼은 제자 훈련 교회들의 결속과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제자훈련 목회의 확산을 위해 해마다 한 차례씩 춘천, 원주, 강릉으로 돌아가면서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강원 CAL-NET은 11월 19일(목)에 하늘평안교회(오생락목사, 강원대표)에서 열렸다. 약 60여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제자훈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갖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 일정은 전 강원지역 대표인 신재원목사(새춘천교회)가 CAL-NET과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소개를 했다. 신목사는 "침체에 빠져있는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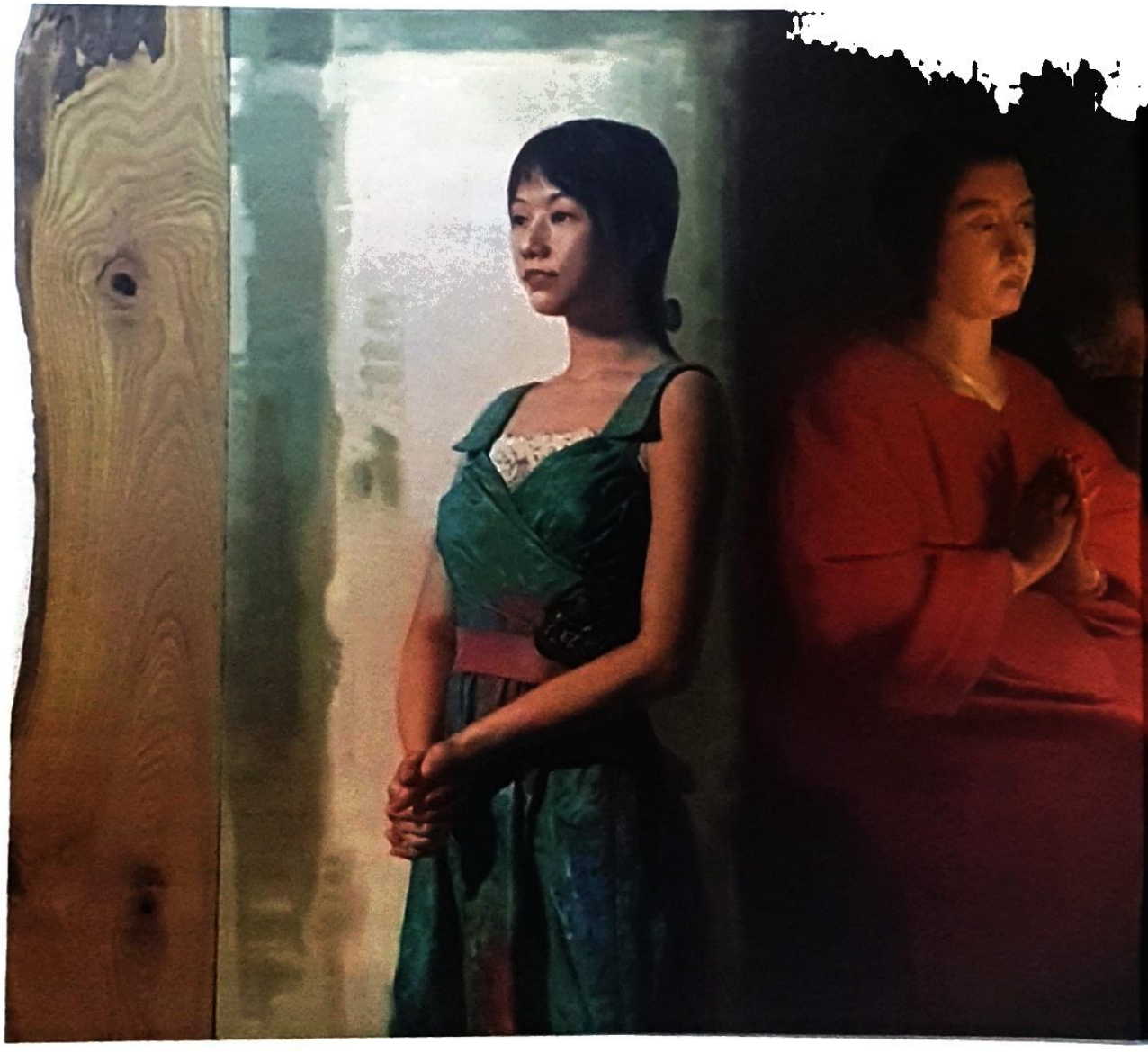
이번 강원 CAL-NET 포럼의 강사로는 한태수목사(은평성결교회, CAL-NET 이사 및 서울 대표)가 '제자훈련과 리더쉽의 실제' 라는 주제로 나누었다. 한 목사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면 목회가 보인다. 한 명을 크게 보는 것이 큰 목회이고, 한 명을 작게 보는 것이 작은 목회이다. 사람이 보이고 목회가 보이면 제자훈련이 가능하다. 제자훈련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는 순교의 영성이 보인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잘 죽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며,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바보를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제자훈련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며, 제자훈련을 하려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서서히 끌어올려야 하며, 목회자가 먼저 섬김의 본보기를 통하여 종의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하며,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며, 결국에는 성령님에 이끌려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지도력을 본받는 과정으로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희생하여 죽고 타인을 살리는 리더십이 한국교회를 살리게 된다. 제자훈련 목회는 이런 희망을 가진 목회철학이다"고 설파했다. 한목사의 모범적인 목회와 통찰력 있는 메시지 한 마디 한마디가 제자훈련 목회를 하고 있거나 시도하려는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설교 준비에서부터 제자훈련까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 등 그간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체득된 엑기스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었다. 목회자들이 강의 내내 흐트러짐 없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제자훈련 목회의 노하우가 깊이 녹아져 전달되어 신선한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난 후에 하늘평안교회에서 정갈하면서도 성의껏 준비해준 식사를 나누면서 그간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보따리를 풀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지역별 모임에서 춘천지역과 원주 및 기타지역으로 나눠져 각자 자신과 교회의 제자훈련 상황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시간에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 제자훈련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질의응답의 패널로는 고정열목사(원주단구침례교회, 실행위원), 신제원목사(새춘천교회, 고문), 오생락목사(하늘평안교회, 강원 칼넷 대표), 이병철목사(주향교회, 강원 칼넷 총무), 조주영목사(원주동부교회, 실행위원), 김동오목사(태장성결교회, 실행위원)가 섬겼다. 지금 막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 당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고민하는 목회자, 제자훈련과 교회 성장을 함께 이루고 싶은 목회자, 제자훈련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제자로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나눔이 있었다. 한 번의 포럼과 토론으로 많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목회와 제자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이며, 함께 손을 잡고 목회의 본질과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따르고자 함께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마무리 하는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목회 현장에서 한 영혼을 크게 보고 제자로 세우고자 씨름하는 목회자들이 늘어갈 때 예수 안에서 빛나는 미래가 조국 교회 위에 열려질 것이다.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 Salvation 작가 김복동

2013-3 / 237.7×115cm / oil on canvas & wood

'목동들의 경배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 에서 조르쥬 드 라 투르(Georges de la tour)는 촛불의 화가답게 그 광원만으로 빛을 표현하였는데, 깊고 진한 감동으로 숙연함을 갖게 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주한 관객은 기쁨과 환희의 장면을 기대하나, 그의 탄생을 경배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동과 박사들은 무겁고 진중한 표정으로 일관한다. 빛이 있는 곳과 경배하는 인물들의 시선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로 집중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기 예수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 하 듯 온몸을 수의 같은 천으로 감싸고 깊이 잠든 모습이다. 인류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구원(Salvation)의 예수를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대목이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마 2:6)

다. 이 놀라운 표현의 비밀은 측면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과 그림자의 미학에 있다. 테네브리즘(카이로스쿠) 기법은 단순한 명암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정신(mind), 심리(psychology) 등의 다양한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촛불의 빛을 통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현대 여인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또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호소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은(이하 대교단,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대표 변호사)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취약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돕는 기독청년들의 교육봉사운동으로, 2009년 1월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입니다. 대교단의 핵심 가치는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동행함으로써 더불어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을 추구하며, 나눔, 동행, 변화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취약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전인적인 돌봄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치며 당당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션이며, 이러한 교육 실천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년과 청소년들을 사회적 리더로 양성하고 교육봉사운동을 확산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봉사단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대교단은 자체 개발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중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데, 2009년 경기도 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춘천의 9개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춘천 봉의중학교에서 올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에담교회(담임목사 권기찬)에서 춘천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작은 시작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씨드스쿨을 후원하기로 결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씨드스쿨(Seed School)은 무엇인가요?

씨드스쿨은 청소년들이 청년 교육봉사자와의 1:1 멘토링을 통해 자기 정체성과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꽃피워 나가도록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어,







T(Teacher, 씨드스쿨 교육봉사자)의 헌신과 씨드(Seed, 씨드스쿨 참가학생)의 기대감 그리고 M(Maestro, 씨드스쿨 현장담당자)의 열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번에 춘천에서 시작한 씨드스쿨의 경우, 20명 이상의 중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정작 봉사할 T가 없었습니다. 춘천소재 대학교에 공고를 하고 여러 교회와 기독서클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나 8월 하순에 예정된 T스쿨(멘토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 사전교육) 참가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소개한 결과, 대학교의 게시판을 보고 30여명이 T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의중학교 씨드스쿨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매주 화요일 하교 이후 5시부터 8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저녁 시간에 운영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의 1년 동안 1학기 꿈을 발견하는 '비전코칭', 2학기 꿈에 다가가는 '창의코칭'의 짜임새 있는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멘토(T)와 멘티(씨드)가 체계적으로 활동합니다. 첫째로는 자아발견, 흥미적성탐색, 역할 모델인터뷰, 비전로드맵 등을 하면서 정체성과 진로방향성을 찾게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꿈을 이루는 자기관리, 마음근육(긍정성)기르기, 미래꿈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재능 및 역량을 개발하고, 세 번째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씨드 나눔 장터, 지구 힐링 작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알게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드스쿨을 경험한 씨드는 T의 돌봄과 헌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고, T 역시 씨드와 함께 꿈을 꾸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그 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씨드스쿨의 현장운영자로 섬기고 계신데, 계기나 보람이 있다면요?**

○ 함지혜 현장운영자(M) : 저는 20대 때부터 청소년을

향한 사랑과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교회 안의 아이들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2011년 씨드스쿨을 알게 되고 대교단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저의 비전을 이루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씨드스쿨이 춘천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춘천에서, 그것도 제 모교인 봉의중학교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게 현장운영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막연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시기에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조언해 줄 좋은 멘토가 옆에 있다면 청소년들이 용기를 얻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후배들에게 씨드스쿨을 통해 진로 상담이나 인생 고민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씨드스쿨을 하면서 학생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좋고 보람이 있습니다.

○ 하혜정 봉의중학교 교육복지 담당교사 :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혼자서나 아니면 또래만으로는 한계가 많은데 자신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학생들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게 되니까 매우 효과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봉의중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알려드렸더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씨드스쿨은 학교 입장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여겨집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씨드스쿨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놀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티가 날 정도입니다. 일례로 중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같이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 씨드스쿨은 편안하고 좋으니까 같이 사진 찍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 아파서 조퇴한 학생이 씨드스쿨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에 찾아올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T들과의 관계 속에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학생들도 자신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씨드스쿨은 잘 구성된 프로그램에 헌신하는 멘토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씨드스쿨에 개인이나 교회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씨드스쿨을 운영하는 재정은 펀딩으로 조성됩니다. 중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대략 24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예산 확보에 따라 더 많은 학교에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후원자로 동참하는 방법도 있고,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을 함께 돌보고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면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한 학교를 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을 돕고 섬겨주는 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데, 씨드스쿨이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회가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또 대학생/청년들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독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씨드스쿨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후원계좌 : 하나은행 199-910018-75304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문의 : 070-4351-5522~5
○ 씨드스쿨 홈페이지 : www.seedschool.kr

# 선물

강인호

내 너무 가난하여
그대에게 줄 것이 없네

헤진 마음 한 자락
곱게 다려 보내드리거니

아름다운 사람 만나
눈물 흘릴 일 있거든

접었던 마음 꺼내어
그대 손수건이 되었으면






# 체온과 건강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자연의원 원장 김태균

자연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후 한동안 환자들이 '이 곳이 병원인가, 한의원인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이름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감기나 장염,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처방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약 대신 유산균분말이나 스프레이를 주면서 몸의 자연치유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 주곤 하는데, 개원 초기에는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싫어하며 그냥 처방전이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환자들의 반응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환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본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해 왔다.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아 효과를 본 환자들을 통해 병원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각종 난치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좋다는 것을 다 해보고 병원도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다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과 마주 앉아 보통 30분이 넘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손발이 차지 않은지, 과거에 비해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는지'를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어떤 환자는 발이 너무 시려서 잠도 잘 못 잔다고 대답하기도 한다.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체온과 건강, 체온과 혈액순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어 혈액을 통해 몸의 각 세포에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세포들로부터 노폐물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일을 한 순간도 쉼 없이 하고 있는 우리 몸속 혈관의 총길이는 무려 12만km에 이르고, 이 길이를 쭉 펼치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다. 몸의 일부가 잘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그것은 곧 사망을 의미한다.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레위기17장 11절)"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다.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 온 몸에 전달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체온이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다. 체온이 떨어져 36도 정도가 되면 뇌에서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 몸을 떨게 만든다. 35.5도까지 떨어지면 배설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체온이 계속 떨어져 33도가 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고 30도가 되면 의식이 상실되면서 죽어가게 된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기능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35도대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체온으로 인해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고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체온과 면역기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기능은 5배 이상 증가하고, 체온이 1도 저하되면 면역기능의 30%정도가 저하된다. 또한 체온이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력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살이 더 찌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아무튼 체온의 저하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든다.

현대인들은 운동부족, 지나친 냉방기 사용,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의 각종 약물 복용,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 많은 원인에 의해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저체온으로 인하여 통증 및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반신욕(물 온도는 자신이 너무 뜨겁지 않게 느끼는 정도로, 대개 39-40도 정도가 적당),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 복식호흡, 현미채식, 스트레스 줄이기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난치질환으로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포톤온열치료로 필수적으로 받게 한다. 심한 아토피피부염으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이 가렵고 진물과 피로 성한 곳이 별로 없던 4살 딸아이에게 더 이상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를 쓸 수 없다며 우리 병원을 찾아온 엄마가 있었다. 약을 끊고 유산균을 먹이자 피부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밤에 한 숨도 못 잘 정도가 되었다. 그 아이에게 포톤온열치료를 매일 받도록 했더니 일주일 정도 후에 잠을 자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가 되니 가려움증과 피부 상처가 거의 다 좋아졌다. 6주 정도 되었을 때 병원에는 이제 그만 오라고 했더니 아이 엄마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흔히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경우 더우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몸이 차다. 이런 환자에게 특별한 파장과 함께 열을 가해주면 피부병변이 빨리 좋아지고 가려움증도 놀랍게 좋아진다.

이처럼 체온은 면역력 및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추운 겨울, 체온을 잘 지켜 건강을 유지하길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 매운맛 열전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기운이라도 있으면 혹은 업무 등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매운 음식 맛이 생각날 것이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감기 뚝 이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민간요법도 아닌 그저 우스갯소리일 것이다.(그런데 최근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는 소주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든 특제소스가 인기라고 하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 매운 음식점은 여느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식집처럼 재료의 모양에 예민하거나 디테일에 집착 않는 서민적이 고 편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매운맛을 길들여지면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기가 힘들다. 그래서일까?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매운 음식점 창업도 부지기수로 많았다. 하지만 춘천 사람들의 입맛이 어디 보통 입맛인가?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요란하게 등장해서 쓸쓸히 퇴장을 많이 했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퇴장 일보직전의 음식점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매운 맛의 밀도가 떨어지고 사이드 메뉴도 산만하고 거기다가 음식 값도 비싼 체인점 형식이라 그럴 것이다.

춘천에서 대표적인 매운 음식은 돈까스와 라면이 아닌 주로, 순대국과 짬뽕, 짜장면 그리고 갈비, 족발, 닭발, 낙지일 것이다. 하지만 면류 음식을 제외하곤 나머지 고기류의 음식은 어린 자녀와 함께 찾아가는 가족단위의 음식점이 아니라 술잔이 오고가는 시끌벅적한 곳으로 흔히 말하는 2차 음식점이라 우리 같은 크리스천은 그런 자리가 아주 불편하다.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유치원 다닐만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운데 술잔이 오고가며 싸울듯한 언쟁으로 큰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어떤지 간에 정말이지 한심하고 꼴 보기가 싫어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갖고 온 적도 종종 있었고 요즘은 웬만하면 아예 배달을 해서 집에서 편하게 먹는다. (부모는 성장기 어린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직분자의 자녀가 교회출석을 안한다면 부모의 책임이 크다.)

필자는 8년전 미국태권도대표팀(캘리포니아 州)과 함께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대회 첫날 30명 족히 넘는 내빈소개로 시작한 왁자지껄한 오프닝 행사가 끝나고 대회 주최 측에서는 대회에 참석한 수백명의 많은 외국 선수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는데 하필이면 전주의 유명한 먹거리인 전주비빔밥을 놔두고 전주 콩나물 국밥을 대접...우리나라 사람인 필자도 콩나물국밥은 살짝 매운맛이었고 더군다나 쌀 주식 국가에서도 밥을 국에다 말아먹지 않는데 김치의 시뻘건 국물에 밥이 들어가 있고 또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세계 제1위 혐오식품인 산 낙지의 사촌형격인 오징어의 다리가 잘게 토막 난 채 청량고추와 함께 둥둥 떠 있으니 모두 기겁을...하지만 그 와중에 배고프거나 혹은 호기심에 아니면 예의상 몇 수저 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 눈물, 콧물, 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자리를 박차고 전부 나갔다.(아마도 선수들 중에는 주최 측이 우승에 대한 욕심으로 첫 날부터 이러한 몬도가네식의 음식을 대접, 독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골을 터트리는 매운 고통을 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안타깝고 민망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최 측이 정말 모르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문화체험이라 하면서 알면서 그런 건지 아직도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후 밖을 나가보니 편의점 앞에는 매운맛을 달래기 위해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찾는 외국 선수들로 길게 장사진을 이루었다.

(춘천은 아직 매운 음식 맛 때문에 전도사님도 실수로 욕하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으로 그런 죽다 살아날 정도로 매운 음식점은 없다.)

특히 고기류의 매운 음식을 먹을 때면 매운 맛을 잠시 잊게 해주기 위해 나오는 사이드 메뉴는 각 음식점마다 다르지만 아마도 미역국, 누룽지탕, 주먹밥, 계란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필자도 일명 '야금야금' 이라는 상호아래 세상 처음 맛보는 매운 길거리 음식, 너무 매운 나머지 불신자들도 입을 쫙 벌린 채 눈 감고 '주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음식을 출시 준비 중에 있다. 언젠가 이 음식이 속초의 닭강정, 전주한옥마을의 닭 꼬치처럼 춘천의 대표적 길거리 간식음식으로 대박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비록 이 같은 음식이 미슐랭 평가단으로부터 별은 못 받겠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로는 큰 별(福)을 받아 춘천 성시화 운동에 큰 일조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준비 중에 있다.

필자가 추천하는 춘천관내 맛있게 매운 음식점이다. 이곳 음식점을 전부 안다면 당신은 매운 맛 음식 마니아로 인정한다.

순대국(새명동), 짬뽕(거두리), 짜장면(명동 닭갈비집 골목), 갈비(효신사우나 근처) 족발(거두리), 닭발(한림대 병원 앞), 낙지(춘천 소방서 건너편)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 라이프 오브 파이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이안(李安 Lee Ang)감독은 재능이 아주 뛰어난 감독이다. 대만출신 중국인으로서 가장 탁월한 감각으로 걸출한 작품들을 만들어 개봉할 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닌다. 〈음식남녀〉, 〈센스 앤 센스빌리티〉 등의 영화로 이름을 알리면서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거머쥐었다. 〈와호장룡〉에서 무술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를 묘사해 내어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고, 〈헐크〉로 SF물에 뛰어난 재능도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색,계〉로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영상과 서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감독의 영화를 권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별과 경계를 일깨우고자 애써 소개하는 것이다. 즉 이안 감독은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엑소더스〉의 리들리 스콧 감독과

같이 종교 다원주의적 색채가 다분한 작가이다. 아카데미 수상작 〈브로크백 마운틴〉이 동성애를 묘사한 작품으로 이 영화를 보았을 때부터 필자의 정서와 맞지 않을뿐더러 매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의 영화적 기술과 재능은 무시 못 할 작품성과 미학을 갖고 있는바 혹시〈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매우 독특한 설정의 영화에서 그 인간적 감동에 우선 경도되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휩쓸릴지 모르는 반기독교적 정서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파이(Pi)'는 다름 아닌 수학의 기하학 용어인 'π' 그대로를 뜻하는 주인공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상정한 이유는 아마도 원주율을 뜻하면서 원과 우주의 상징을 말하고자 한 듯, 이는 감독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으며 파이의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 불교 힌두교 등 다수임에 보듯이 다원주의 세계관의 관점임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적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전 세계에서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영화에서 받는 감동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로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면서 좁은 구명보트에서 벵골호랑이와의 단독 사투 및 생존의 극한적 위태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만큼은 배워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양(大洋)에서의 대기와 물빛의 묘사는 정말 황홀함 그 자체였으며 아름다운 영상미학의 극치 중 하나로 기억될 만하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난관들에 대한 상징과 그 극복 및 생명존중의 마음으로 경외감을 갖게도 할 수 있는 대자연의 위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는 그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신의 철학을 피력한다지만 이러한 자유로 진정한 세계관을 호도하는 매우 교묘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 또한 간과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 너무 표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할 명분이지만 우리는 자유라는 명분으로 또 얼마나 은밀한 '타협(妥協)'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매우 쉽지 않은 영적 긴장으로서의 분별을 또한 잃지 말아야 함이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이처럼 매우 위태하고 어려우며 이해받기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기술과 재능으로 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신실한 감독이 우리시대에 속히 나타나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마라나타가 될 것인가?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 2015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2009년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기획하여 부산기독교연합회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거리 상인단체가 연합하여 시작한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가 올해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성탄의 메시지가 바다 넘어 일본과의 화해를, 또한 북녘 땅에도 흘러넘쳐 모두가 하나 되어, 미래에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의미를 담고, 일곱 번째로 펼쳐지게 되는데, 부산의 기독교성탄트리문화가 시민참여 형 축제, 다양한 문화축제로, 겨울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올해 행사계획 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축제의 개요

- 기간 : 2015. 11. 28(토)~ 2016. 1. 3(주일) (37일간)
-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대(광복동 입구 ~ 국제시장 사거리까지 1,160M)
- 주제 : 평화의 성탄 _ 화해의 성탄 _ 다 함께 미래로!
- 내용 : 오프닝게이트 등 축제콘텐츠, 기념 프로젝트, 시민참여 행사, 소품전시, 무대공연, 성탄음악회, 가족영화 상영 등
- 주최 :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주관 : 광복동 문화포럼
- 후원 :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광역시청, 중구청

※ 특징 : 연간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세계적인 축제 (제59회 세계축제협회 금상 수상, 2014 아시아 도시경관 상 수상)

### 축제의 의미

**(1)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겨울 축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 겨울, 부산역과 광복동 거리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화려한 일류미네이션, 스토리가 있는 포토 존, 37일 내내 펼쳐지는 문화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놀라운 콘텐츠로 가득하다. 부산을 가장 가고 싶은 행복한 도시, 다시 오고 싶은 크리스마스 도시로 자리매김할 이번 축제는 국내 최고의 겨울 대표축제입니다.

**(2) 원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

어려운 경제상황 속, 중구 상업지역에서 열리는 37일간의 '부산크리스마스축제는 빛의 향년을 배경으로 볼거리, 먹을거리로 가득하여 전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부산 중심 상권으로서의 원 도심을 활성화 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축제입니다.

**(3) 평화와 화해를 소망하는 축제**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보내고 새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축제입니다. 겨울 부산 광복동에는 눈이옵니다. 초대형 트리 앞에서 매일 매일 펼쳐지는 시민문화 공연, 아름다운 포토 존에서 사진도 찰칵, 소망트리에 꿈을 적고 비전의 날개를 달고 천사가 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나눔의 굴뚝과 사랑의 프로 포즈,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랑의 Relay Given Day.....등 내가 주인이 되는 이번 축제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축제입니다.


김영명 기자 / kym_5771@naver.com

# 11월 이야기

## 탈북민 종교 및 문화체험 행사



지난 10월 31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탈북민 종교 및 문화체험 행사를 한정협과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목사) 주관으로 춘천중앙성결교회(유동선목사)에서 가졌다. 탈북민과 섬김이를 포함해서 모두 100여분이 참여했다. 1부 예배에서는 오의석목사(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사회로 강철주 장로(장로연합회장, 창대감리교회)의 대표기도와 유동선목사(춘천중앙성결교회)의 환영사, 조영호목사(춘천그리스도의 교회)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도시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해서 통일을 위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섬김이들의 헌신이 빛나는 시간이 되었다.

## 제29회 청소년 희망날개 장학금 마련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연합찬양축제



제29회 청소년 희망날개 장학금 마련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연합찬양축제가 10월 31일(토) 저녁6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춘천 내 도움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춘천교회 찬양대가 참여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강원CBS 박윤경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창환목사(월드비전 춘천지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9개교회 12개팀의 찬양이 있었고, 월드비전강원어린이합창단과 익투스 여성합창단의 찬조출연으로 진행된 춘천연합찬양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 에벤에셀 춘천청소년집회

에벤에셀 춘천청소년집회가 11월 28일(토) 오후2시에 거성교회(김수복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에는 이윤기교수(한국 성서대)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춘천내 교회들의 연합으로 매달 개최되는 집회이다.

## 제8회 춘천시민초청탁구대회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목사)에서는 제8회 춘천시민초청탁구대회를 10월30일(금)~31일(토)까지 이틀간 개최했다. 순복음춘천교회 탁구선교회(김종열장로)가 주관한 이번 탁구대회는 8년동안 약 1600여명의 춘천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춘천에서 개최되는 명실상부한 탁구 메이저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춘천시내 탁구동호회 등에서 20개팀 21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남자단체, 여자단체, 남자단식, 여자단식, 혼합복식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으며, 각 부 1,2,3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대회에는 따뜻한 차와 간식, 맛있는 점심식사와 경품 추첨등 다양한 이벤트로 사랑을 나누며 친도의 장을 마련하였다.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가 11월 13일(금) 오전7시에 광염교회(박인관목사)에서 있었다. 이날은 이병철사무총장의 사회로 황병호장로의 대표기도, 차덕수본부장의 말씀선포, 박인관목사(부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최상도목사(사암교회, 이사)의 발전기금모금 현황과 협조 당부말씀과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차덕수)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김창환)의 사역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쳤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2월 18일(금) 오전11시에 온누리교회(김창환목사)에서 2015 정기총회를 갖는다.

##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역원 워크샵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목사, 강원침례교회)에서는 2016년 임역원 워크샵을 11월 19일(목) 오후7시에 산천무지개교회(윤재선목사)에서 가졌다. 이날은 차덕수회장의 인도로 2016년도 춘천기독교연합회 사역 계획을 마치는 시간까지 진지하게 논의하며 회의가 진행되었다. 춘천교역자연합회는 춘천목회자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음을 알렸고, 2016년 춘천목회자연합회(박찬욱목사, 새순교회)의 사역계획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 워크샵을 마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쳤다.

##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세계기도일위원회 춘천지역교회 여성연합회 창립예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세계기도일위원회 춘천지역교회 여성연합회 창립 및 회장 취임예배가 11월17일(화) 오전11시에 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님) 덕수홀에서 열렸다. 1967년 설립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예장 통합, 기감, 기장, 루터회, 성공회 소속 여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여성들의 능력 계발을 위해 애쓰는 단체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여성 지도자 모임을 개최해 여성 리더십을 증진시켰고, 세계기도일예배를 통해 180여개국 여성들과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일치 운동을 벌였다. 이빈모임에서 춘천지역 여성연합회장에는 이현숙권사(중앙감리교회), 총무에는 송화선권사(동부장로교회)가 선출되었다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서울본부 총무 신미숙목사(동부장로교회)가 전했다.

## 제18회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8회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허봉 단장) 정기연주회가 11월 21일(토) 오후6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소정아나운서(강원CBS)의 진행으로 손유리에의 지휘, 경유림의 반주로 56명의 어린이들이 찬양과 동요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공연을 했다. 이날은 강원브라스퀸텟, 춘천여성합창단, 조용원성악가의 찬조출연이 있었다.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일 오후3시~6시까지 예배(김길홍목사, 순복음하나교회)와 연습을 하고 있는데, 12월 4~8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찬양선교를 계획하고 있고, 12월 19일에는 신입단원 오디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 통일광장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11월 23일(월) 저녁8시에 석사교 하천 야외무대에서 있었다. 이날은 선교초대교회 찬양단(강수인목사)의 찬양과 춘천찬미워십팀(이명자 사모)의 워십이 있었고, 설교에는 정재호목사(늘사랑교회)가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선포가 있었다. 조은제선교사(베드로선교센터)의 기도회 인도와 김수복목사(춘천통일광장기도회 대표, 거성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12월 통일광장기도회는 28일(월)에 갖게 되며, 강사는 박상칠목사(신성감리교회)이다.

## 2015 성탄트리 점등식 예배








성탄트리 점등식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는 작년에도 비가 촉촉이 내렸다가 개었는데, 올해에도 눈발과 함께 비가 내리며 외부 기온도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다. 그럼에도 성탄트리 점등식예배는 성탄의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춘천역 광장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올해 춘천에는 성탄트리가 두 곳에 세워졌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중앙로 로터리에서만 불을 밝히던 성탄트리가 춘천역 광장에서도 빛을 내며 성탄의 소식을 춘천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다.

2015 성탄트리 점등식예배는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회장) 주관, 춘천시 후원으로 11월 29일(주일) 오후4시 춘천역 광장에서 있었다. 에스컴의 찬양 인도로 저들 밖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드리고, 박상칠목사(연합수석부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은혜와 재치 있으신 사회로 추위 속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강철주장로(장로연합회장, 창대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차성화목사(연합회서기, 샘밭침례교회)의 빌2:5~8의 성경봉독이 있었고, 비옷을 갖추어 입은 나눔교회(피종호목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이어 차덕수목사(2016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외부인사의 축사가 있었는데, 최동용 춘천시장, 김영일 춘천시의장, 김진태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며 축하인사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정기연주회를 가졌던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이 산타 모자를 쓰고 특송을 해주었다. 오의석목사(연합회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광고 후, 지용찬목사(연합직전회장, 은혜장로교회)의 축도로 성탄트리 점등식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춘천교회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성도, 청소년, 어린이들이 함께하며 춘천과 온누리에 구세주 예수의 성탄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기를 기원하였다.

**※ 광고 및 취재 문의**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축 성탄

#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네

춘천기독교연합회




## 2016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 명단

| | |
|---|---|
| 회 장 |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
| 수석부회장 |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 |
| 부 회 장 | 박찬욱 목사(새순교회) |
| | 강철주 장로(창대교회) |
| 총 무 |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 |
| 부 총 무 | 정덕현 목사(푸른초장교회) |
| | 유영춘 장로(안디옥교회) |
| 서 기 | 차성회 목사(샘밭침례교회) |
| 회 계 | 김항기 장로(석사감리교회) |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등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게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일시 : 월~금 (주1회) 9:00-14:00 시간 변동 가능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내용 : 식당보조 및 배식, 설거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인원 : 00명 · 장소 : 일정 및 시간 협의 가능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안한나, 이의경 사회복지사)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2016년 청소년 대상 겨울방학특강**

· 주관 : 해피스쿨 (010-2248-6387)

·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5층 중강의실

· 주제 : 근현대사 특강 · 일시 : 1/9, 16, 23, 30 (매주 토 4주간) 오전10~12시

· 주제 : 이슬람 특강 · 일시 : 2/13(토) 오전10~12시

· 주제 : 창조론(차성도) · 일시 : 2/27(토) 오전10~오후1시

※ 문의 :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일 디보 (IL DIVO:2004)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IL DIVO



벌써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는 감사가 넘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해주셨던 주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늘 듣던 〈메시아〉나 베토벤의 음악보다도 한번 가벼운 팝페라로 일 디보의 환상의 남성 하모니를 추천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곡으로 그들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보시지요?

원래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를 뜻하는 디바에서 남자 주인공을 나타내는 일 디보(IL DIVO)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네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클래식을 전공한 친구들입니다. 미국의 데이빗 밀러(테너), 스페인의 까를로스 마린(바리톤),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이장바르(테너), 스위스의 우르스 뷜러(테너)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그룹입니다. 어떻게 이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국의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렐이 가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등용문인 미국 아메리칸 아이돌의 심사위원이기도 하면서 새로 야심차게 기획했던 팝페라의 그룹입니다. 감미로운 팝뮤직과 고전의 오페라를 결합시켜서 클래식한 분위기로 이지 리스닝계열의 사랑받는 그룹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일 디보입니다.

2004년 첫 앨범을 발표해서 5백만장이 넘는 기록을 세웠고, 팝페라로서 처음으로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한 특이한 기록도 갖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해져서 많은 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멋진 감동의 화음을 들려줄 그들만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한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어보시지요. 가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멜로디에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그들만의 음악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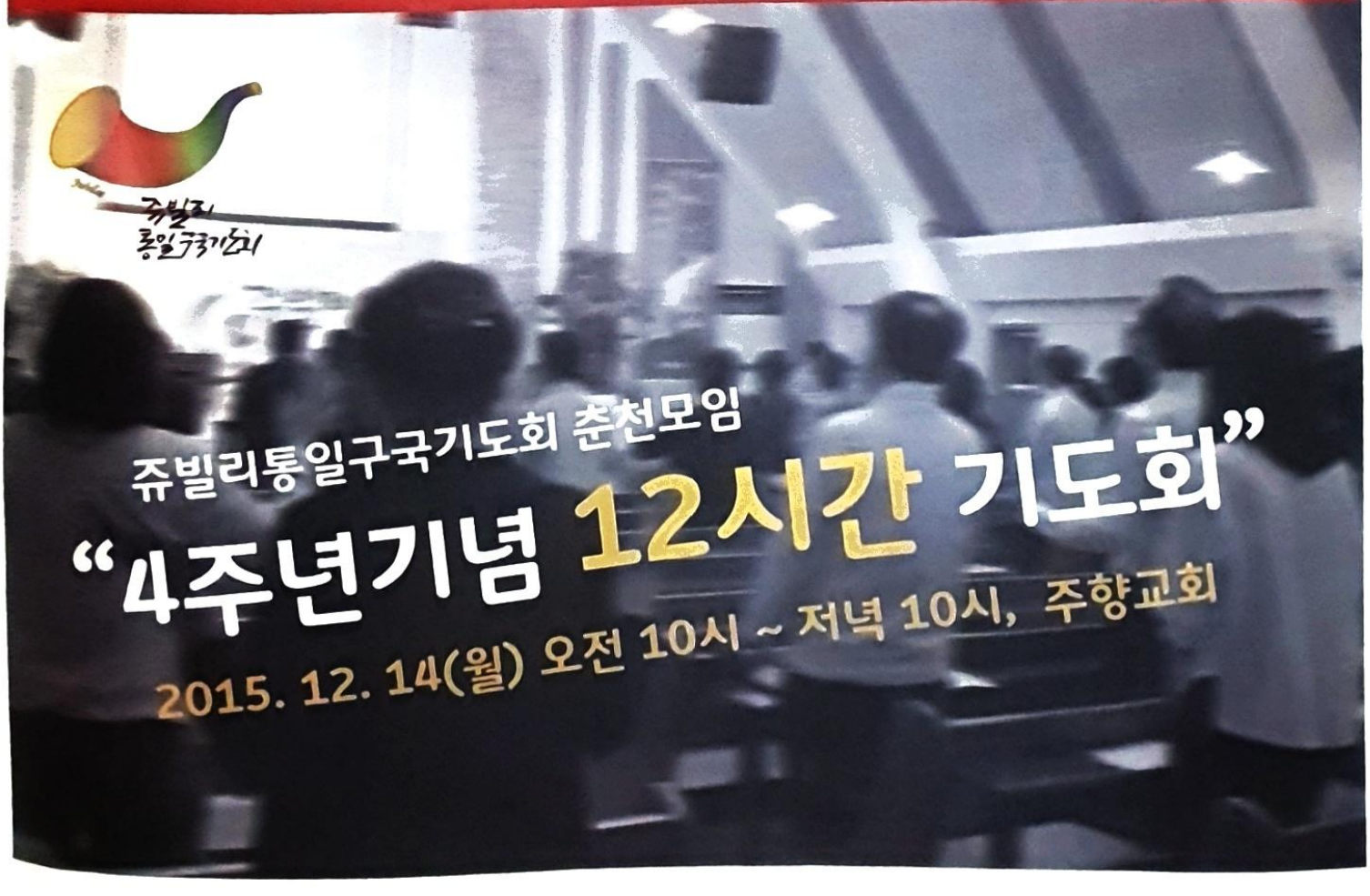
음악 치료 자선단체인 노도프 로빈스를 후원하기 위해서 데이빗과 우르스는 자전거로 8일간 미국을 횡단해서 목표액 일만 파운드를 모금하기도 했던 멋진 청년들입니다. 2014년에는 첫 앨범 발표 후 10년동안 2천 8백만장이 넘는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팔렸고, 33개국이 넘는 다른 나라들에서 50여곡들 가운데 골드와 플래티늄 레코드를 받기도 했답니다(위키백과참조). 무대와 무대 밖에서도 일 디보로서 젊은이들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성시 가족 모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과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음악이야기였습니다. (VOL.23). 샬롬!

글 / 김금찬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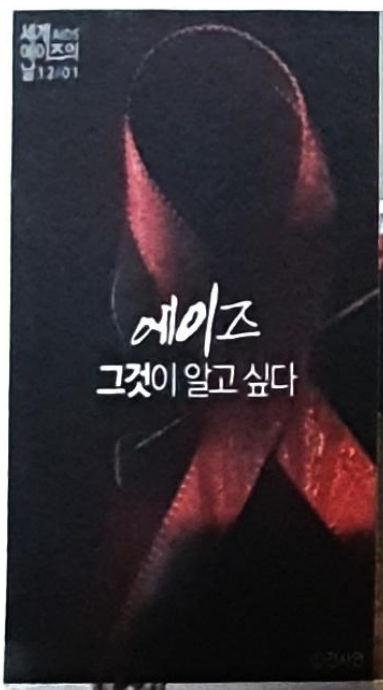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마감되었습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 "4주년기념 12시간 기도회"

2015. 12. 14(월) 오전 10시 ~ 저녁 10시, 주향교회






한국의 에이즈 환자 한 해 1,000명 이상

이노근 의원 "남성간 성접촉이 주요 요인이다."
[한겨레신문 2015.2.18.]



**동성애는 에이즈의 작접적 원인!**

한국에서는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 성교에 의해 급격히 전파되며 주사 마약사용에 의한 감염이 매우 낮다.
[동아사이언스의 HIV/AIDS 역학 (2005년) 29쪽.]



10-20대 신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94%** 가 동성애자
[2011년 미국CDC 통계]

남성 동성애자들의 감염비율은 일반인의 '**183배**'
[2003년 서울대학교 보고서]











**항문 성교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항문 성교 시 항문 점막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항문을 통한 바이러스의 침입은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한림대학교 내과학교실 이관형]



**콘돔으로도 100% 에이즈 예방은 불가능**

콘돔의 피임 실패율은 15%, 콘돔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헬스조선 201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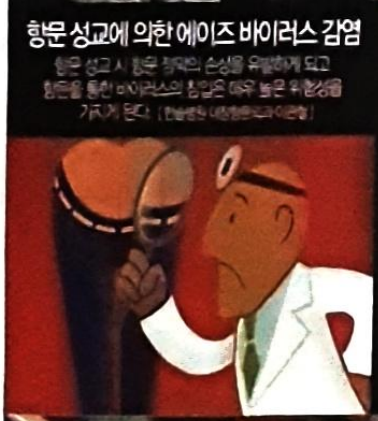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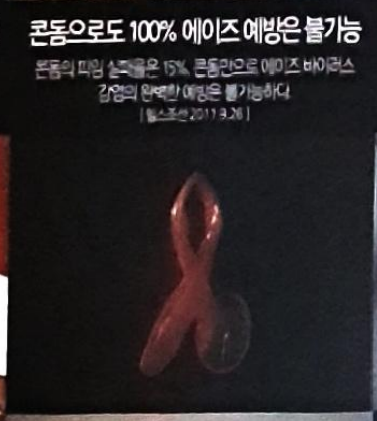
에이즈 환자가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던 우간다는 현재 **4%대**로 비율이 떨어졌다.
우간다 대통령이 제 15차 국제 에이즈 회의에서 필요한 내용 "콘돔 사용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며 **정절과 금욕**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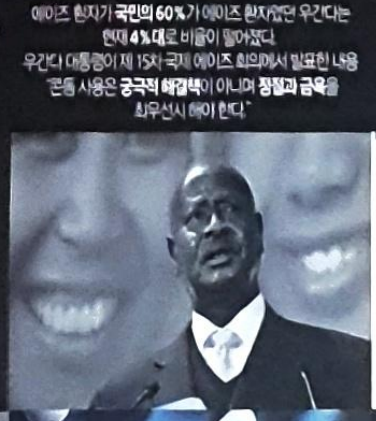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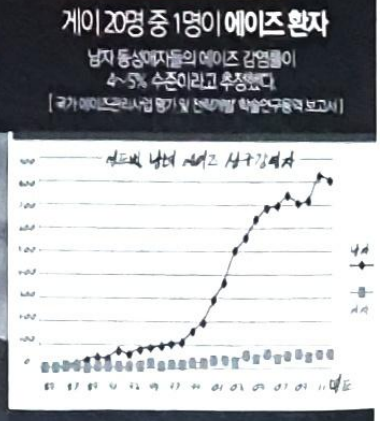
**게이 20명 중 1명이 에이즈 환자**

남자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4~5%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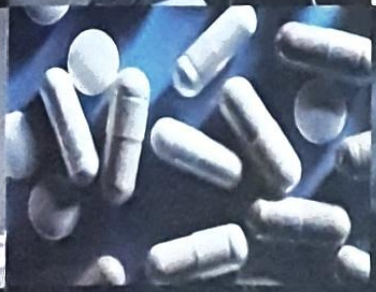



**충격적인 에이즈 확산 경로**

에이즈가 만연한 사회를 보면 3단계 확산 과정을 거친다.
**동성애자** 사회 **양성애자**로 결국 **이성애자**로까지 퍼지며 급속히 확산된다. [한림대학교의대 성상철교수]

**레즈비언도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즈비언의 20%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었다고 추정한다.
[Timeslive 2015.6.11.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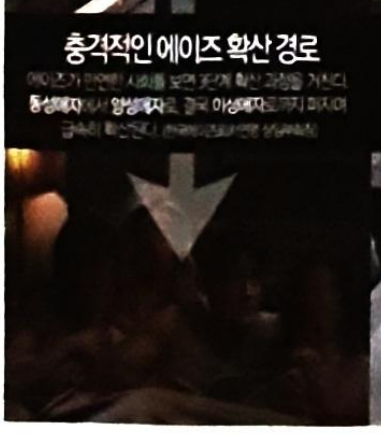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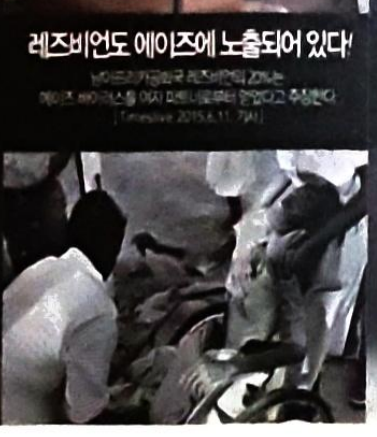
**에이즈 약값은 1명당 월 400~6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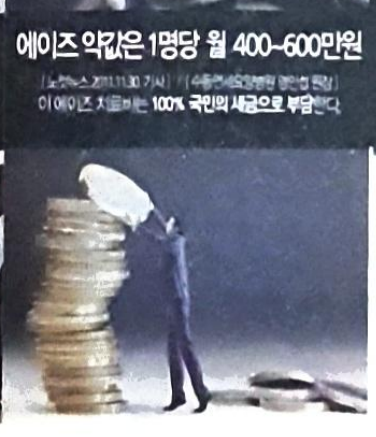
[노컷뉴스 2011.11.30 기사]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인용]
이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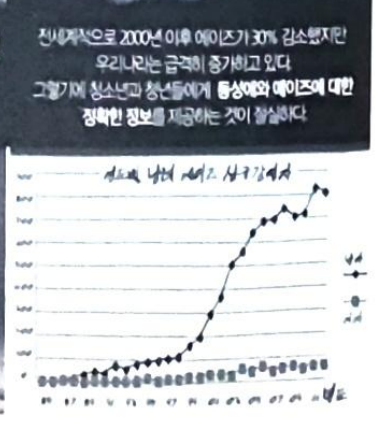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에이즈가 30%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 가보자!!
#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녀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 발전기금

사암교회 주향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자연유치원 제자들교회 신성교회 남산감리교회 광염교회

###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세희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박갑출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황순 신미연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은희 장창순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미경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증인 표복순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신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춘천YWCA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사무용단 월드비전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2016 28기 겨울

# 선교사훈련생 모집

2016. 1. 4MON - 22FRI 3주



신청 및 접수

국제선교훈련원(IMTI)

T. 033/243-6704 F. 243-6705

E-mail : jdmnmission@한멜

## 28th IMTI WINTER QUARTER

**모집대상** 선교에 관심을 갖고 훈련 받기 원하는 자
장,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려는 자

**훈련비용** 1인 500,000원 / 부부 800,000원

**훈련일정** 2016년 1월 4일(월)-22일(금) 3주

**강의내용** 선교적 제자도, 사도행전 강해,
선교의 성경적 이해, 선교사의 영성관리,
단기선교사론, 선교현장 이야기, 영어예배 등

• 강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imti 국제선교훈련원

JDM 예수제자운동

# 춘천신협 사회공헌활동



## 원장님의 기도 (나눔의 집)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발걸음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시어서 위대한 시간 만났습니다.
늘 생각 속에 살고 있지만 춘천신협과 저희가 함께 사역함을 압니다.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사랑과 수고의 마음으로
우리 식구들을 맞이해 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헌신해 주신
춘천신협 이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밝게 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감싸주시고, 언제나 이 시간을
추억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 중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로 들아가서 열심히 일할 때에
일한 만큼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춘천신협이 소문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도전 받을수 있을 만큼
춘천신협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좋은 신협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듯이
암으로도 우리 춘천신협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조합" 이 되기 위해 힘쓸것이고
춘천신협 임직원들은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경영정신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우대받는 참 은행,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큰 신협

# 춘천신용협동조합

근화지점 : (033) 241-8383
석사지점 : (033) 261-5500
중앙지점 : (033) 243-8211
퇴계지점 : (033) 243-4800